

독수리 “날자, 10연승”... 26년 만의 도전

선발진 불패행진 사기충천
공격 살아나 단독선두 우뚝
오늘 키움 이기면 신화 재현
최다 연승 경신도 순풍탈 듯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가시밭길에 예상됐던 9연전(4월29~5월7일)에서 두 번의 달콤한 휴식을 얻고 7승을 거뒀다.



부상을 털고 5월2일에 1군으로 돌아온 최정(SSG 랜더스)은 6경기에서 홈런 3개를 쳤다.

9연전을 마치고 하루 휴식을 취한 뒤에 9일부터 치르는 주말 3연전에서 한화와 최정은 달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까.

한화는 21세기 첫 10연승에 도전한다.

한화는 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10-6으로 꺾고 4월26일 kt wiz전부터 시작한 연승을 9경기째 이어갔다.

4월13일 대전 키움 히어로즈전부터 23일 부산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까지 8연승을 거뒀던 한화는 이번에는 9연승 행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한화가 9연승을 거둔 건 2005년 6월4일 두산 베어스~14일 KIA 타이거즈전 이후 무려 20년 만이다.

9연승 한 번, 8연승 한 번에 성공하는 놀라운 행보 속에 한화는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한화가 시즌 30경기 이상 치른 시점에서 1위에 오른 건 2007년 5월31~6월 2일 이후 무려 18년 만이다.

한화 팬들은 20세기 레코드를 다시 펼친다.

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이는 키움 히어로즈와 방문 경기에서 승리하면 한화는 26년 만에 10연승을 재현한다.

1일과 3일 우천 취소는 한화 연승의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즈,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로 이어진 선발진이 모두 5이닝 이상을 던지며 불펜의 부하를 막았다.

한화가 10연승을 달성하면 프랜차이즈 최다 기록 경신에도 도전할 수 있다.

빙그레 이글스라는 구단명을 쓴 1992년, 빙그레는 5월12일 삼성전부터 26일 롯데전까지는 14연승의 신바람을 냈다. 이글스



한화 마무리 투수 김서현(오른쪽)과 포수 이재원이 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9회 초 삼성 공격을 막아내고 10-6으로 승리를 확정 지은 뒤 승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에 남은 최다 연승 기록이다. 1992년 빙그레는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해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에 패했다. 1999년에는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이렇게 10연승을 거뒀던 해에 한화(빙그레

시절 포함)는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가을야구를 열망하던 한화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 한편 최정은 올 시즌 첫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는 3월17일 광주에서 벌인 KIA와 시

범 경기를 앞두고 수비 훈련 중 오른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에 불편함을 느꼈고 부분 손상(그레이드 1) 진단을 받았다. 8일 현재 최정의 성적은 20타수 6안타(타율 0.300), 3홈런, 7타점이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박지성·손흥민 다음은 이강인

PSG, 5년 만의 UCL 결승 진출... 韓 선수로 세 번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면서 이강인(사진)도 박지성(은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대회 결승전을 맞이하게 됐다. PSG는 8일 오전(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아스널(잉글랜드)과의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터 유나이티드(맨유) 소속으로 세 번의 UCL 결승을 맞이했고 그 가운데 두 차례 출전했다.

박지성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07/2008시즌 대회 결승에서 새 역사를 쓸 기회를 맞았으나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져 아쉬움을 삼켰다.

리그(UEFA) 팀 첼시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1-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6-5로 이겨 정상에 오른 순간을 박지성은 ‘판



맨유의 박지성(왼쪽)이 2009년 5월28일 새벽(한국 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2009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C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바르사의 이니에스타(가운데)의 드리블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원정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던 PSG는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아스널을 3-1로 제치고 2019/2020시즌 이후 5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로 결승에 올라 대회 첫 우승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PSG는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6월1일 오전 4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대회 우승을 놓고 마지막 한판 대결을 벌인다.

한국 선수 중 소속팀이 유럽 프로축구 최강 클럽을 가리는 UCL에서 결승에 진출한 사례는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이 세 번째다. 먼저 박지성이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중석에서’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인 2008/2009시즌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결승전에 선발로 나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로도 첫 UCL 결승 출전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박지성은 66분을 뛰고 교체됐고, 맨유는 0-2로 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8년 뒤 손흥민이 배턴을 넘겨받았다. 손흥민은 2018/2019시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리버풀(잉글랜드)과의 결승전에서 폴타임을 뛰었으나 토트넘이 0-2로 저 역시 우승 트로피 ‘빅 이어’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